

『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그곳, 태안 』

지리교육과 2학년 이상우

1. 위치

단	극점			연장거리
	지명	동경	북위	
동 단	태안읍 인평리	126°26'16"	36°27'41"	동서간 80.2Km
서 단	근흥면 신진도리	125°32'41"	36°36'37"	
남 단	고남면 고남리	126°25'20"	36°23'30"	남북간 64.9Km
북 단	이원면 내리	126°18'24"	36°58'34"	

〈 태안군의 수리적 위치 〉

출처: 태안군청 홈페이지

태안군은 동쪽으로는 서산시와
연접하고 있고 천수만과 이어져 있
으며 서쪽으로는 서해와 남쪽으
로는 보령시의 원산도와 마주하고 북
쪽으로는 경기도의 덕적군도를 바
라보고 있다. 동쪽을 제외하고는 3
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써 국내 유일한 해안국립공원이 위
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안선의 길
이가 530.8Km이며, 곳곳마다 절경
을 이루고 있고, 또한 120개의 크
고 작은 섬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내륙에는 저산성 구릉지¹⁾로서 많은 산지
가 개간지로 개발되어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리아스식 해안²⁾은 만곡이
심하여 간척지가 잘 개발되어 있다. 또한 태안군은 안면도 천연송림과 아름다운
해안을 잇는 30여개의 해수욕장과 전설을 간직한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태안군 행정구역도〉

출처 : 태안군청 홈페이지

1) 구릉지 : 해발 고도 200~600미터의 완만한 기복을 이루고 있는 지형. 평지와 산지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2) 리아스식 해안 :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나팔 또는 나뭇가지 모양의 만을 이루는 해안.

2. 태안의 자연환경

1) 태안의 지형

태안은 동쪽만 서산시와 연륙되어 있을 뿐 나머지 3면은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해안선이 무려 530.8km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크고 작은 섬들이 118개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만곡(彎曲)³⁾이 심하며 또한 산악이 전체 면적의 54.5%나 차지하고 있어 평야는 적은 편이나 간척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태안군의 지형은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일반적인 지형인 노년기 지형에 속한다.

2) 태안의 인구

태안군은 1989년 서산군에서 분리당시 인구인 8만5천여 명에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해 지난 2004년 말 최저 인구인 6만 3764명으로 15년간 무려 2만1천여 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태안군 내 바다목장화 사업, 항공교육시설, 태안 소도읍 육성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지되는 추세이다.

〈 태안군 인구변화 추이 〉

출처 : 통계청

게다가 천수만 B지구에 관광레저형 태안기업도시가 선정됨에 따라 2만 4448명의 고용창출과 1만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이전 정책에 따라 서부발전소 본사가 이전될 경우 발전소 임직원 및 가족이 전입하게 되고 서해안 개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기후

3면이 바다와 접해 있으므로 저절로 바다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의 관계로 같은 위도상(緯度上)에 있는 동해안 지역보다 오히려 추운 편이다. 하지만 4계절이 뚜렷하여,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열대지방을 방

3) 만곡 : 활 모양으로 굽음.

불할 정도로 고온(高溫)이어서 대륙성 온대기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지리적인 영향을 받아 한서(寒暑)의 차가 심하지 않은 해양성 기후의 현상도 나타난다.

구 분	태안군	충주시	영덕군
8월 평균 기온	25.6℃	24.4℃	26.9℃
1월 평균 기온	-2.7℃	-1.5℃	0.6℃
연평균 기온	11.8℃	11.5℃	14.9℃

〈 동위도 지역 기온 비교 〉

3. 태안의 산업



〈태안군 브랜드〉

출처 : 태안군청 홈페이지 원이 구성되어 있다.

태안군은 원활한 접근성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청정지역이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대 진입이 가능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인터체인지에서 태안과 서산 A, B지구를 통과하여 태안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되어 교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제 꽃 박람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울창한 송림으로 어우러진 20여 개의 해수욕장과 태안 해안 국립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4. 태안군의 산촌

우리나라의 취락은 형태적인 면에서 볼 때 일부의 산간지역과 신 개척지역을 제외하면 산촌(集村)⁴⁾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중서부해안 지대에 위치하고, 인류거주의 역사가 오랜 태안반도 지역에서 산촌이 널리 발달되었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태안반도는 해안지방에 대규모 산촌이, 내륙지방에 소규모 산촌이 나타난다.

1) 태안반도 산촌의 입지 배경

(1) 지형

태안반도 일대는 저산성 산지(100~300m)가 분포하여 하천과 평지에 비해 구

4) 형태적으로 가옥이 분산되어 있는 자연 촌락



〈 태안군 산촌 경관 〉

릉지와 곡저지가 발달하였으며, 경지의 규모가 작고 형태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농가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이기보다는 개별 소유의 경지에 각각 밀착하여 분산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로 산촌의 경관이 나타나게 되었다.

(2) 토양

가옥은 배수가 좋고 토양이 굽은 지역을 택하여 입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고 토양이 조강한 것으로 인해 밭농사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토양의 조건 하에서 농부는 각각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가옥을 짓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농부들은 일상적으로 왕래해야 할 생산 공간, 즉 각자 소유의 밭 안쪽에 가옥을 마련하게 된다.

(3) 물

지하수면이 깊어 식수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역에서는 용수를 끌어올린다거나 공동으로 우물을 파야할 경우 집단적 거주 양식을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전통 촌락의 대부분은 우물을 중심으로 집촌을 형성하였다. 반면에 식수(우물과 지하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산촌이 발달한다. 태안반도 지역은 가옥마다 수동식 펌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지하수면이 얕고, 식수원이 풍부하다는 증거이다.

(4) 대규모 노동력 동원에 대한 기피와 은거

삼남지방의 세곡미 수송은 태안 지방의 근흥면 안흥량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곳은 난항처로서 배가 자주 전복되어 조정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개착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1134년 가로림만과 적돌만을 연결하는 굴포운하를 착공하

였다. 이를 위해서 수천 명의 노동자를 동원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후 조선 왕조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지하의 암반 노출과 조류의 영향으로 항상 실패하게 되었다. 거듭된 실패로 인하여 다른 방안으로 안면도와 태안 사이의 착통 공사를 추진하였다. 양대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림으로써 산으로 도피하였고, 이로 인해서 산촌의 경관이 형성되었다.

(5)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

왜구는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의 해안에 출몰하였으며, 특히 고려 말 (1375년) 부터 10년 동안 출몰이 빈번하였다. 그 중 가장 피해가 큰 곳이 태안지방으로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피하여 분산됨으로써 각각의 장소에 입지하였다.

(6) 임진왜란도 피해간 은거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태안 지방의 인구는 급증하였다. 이는 임진왜란의 피해가 없었으며, 이에 인구의 사회적 급증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태안 지방은 한양에서 가깝고, 인구가 희박하며, 전란의 피해가 적음으로 인해 한양의 많은 사족들은 신변 안전을 기약할 수 있는 피난지 및 낙향지로 선호하였으며, 이때 촌락은 각자의 신변 보호와 경지 관계로 분산, 입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읽을거리 >

안면도 2018년 `서해안 베니스`로 변신 인터퍼시픽컨소시엄, 7408억 투자

충남 태안군 안면도를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탈바꿈시킬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진태구 태안군수, 이만규 인터퍼시픽컨소시엄 대표, 이중명 에머슨퍼시픽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골프레저리조트업체인 에머슨퍼시픽과 삼성생명보험, 모건스탠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은 앞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내년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은 2018년까지 외자 3334억 원을 포함해 모두 7408억 원을 들여 '2009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열렸던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381만5000㎡를 대중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기업연수촌, 아쿠아리움 등을 갖춘 국제 관광휴양지(조감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만규 대표는 "안면도를 첨단 휴양시설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국제 수준의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

생각해보기

- 산촌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보고, 현재의 교통·통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 참고문헌 》

- 편집부 / 2002 / 비틀 맵 - 태안여행 / 지오마케팅(비틀 맵)
- 양영훈 / 2006 / 색 다른 여행 (마음 놓고 떠나보자) / 넥서스 BOOKS
- 권혁재 / 2005 / 우리 자연 우리의 삶 (남기고 싶은 지리 이야기) / 범문사

《 참고사이트 》

- 태안군청 <http://www.taean.go.kr/>
- 태안넷 <http://www.taean.net/>
- 태안신문 <http://www.taeannews.c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기상청 <http://www.kma.go.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굴포 운하

★ 우리는 왜 이곳에 왔을까?

굴포운하에서는 선조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가시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는지 느껴보자. 운하라는 사업의 본질에 관해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지어 정리해 볼 수 있다.

★ 교육과정의 어느 부분과 연관이 있을까?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안>

- 한국지리
 -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
 - ④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규모에서 주민 생활에 미치는 변화 및 미래의 변화상을 파악한다.
 - 7단원 우리나라의 지역이해 II
 - ② 교통의 발달로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충청지방의 지역구조를 이해한다.

★ 어디와 비교해 볼 수 있을까?

- 일본의 오타루 운하
- 파나마의 파나마 운하
-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 우리나라의 경인운하